『 미래의 도시를 만나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

지리교육과 2학년 장해진

☞ **답사포인트**
- 송도신도시를 통해 계획적 신도시의 경관을 살펴보자.
- 외국의 선진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점은 없을까 생각해보자.
- 개발과 환경보존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은 없을까.

1. 경제자유구역이란

1) 개념

《 갯벌타워 》

경제자유구역이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별법령에 의해 세금감면이나 보조, 차별화된 법률적용, 보조금지급, 금융/경영지원을 받게 된다. 이 지역은 생산관련 시설, 국제공항·항만, 국제물류센터, 국제업무단지, 교육기관 및 주거단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비하여 자족성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 균등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개념에서 벗어나 국제물류거점도시를 최종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3년 8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종, 청라, 송도 세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 추진배경

현재의 한국 경제는 대외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넛 크래커(Nut-Cracker)[1]의

1) 넛 크래커(Nut-Cracker) :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직전 미국의 컨설팅 기관인 부즈 앨런 & 해밀턴은 〈한국보고서-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에서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넛 크래커 속에 끼인 호두처럼 되었다.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고 한 데서 유래. 비슷한 의미로는 전 이건희 삼성회장이 말한 한국 '샌드위치 경제론'이 있다.

위기에 처해있으며 대내적으로는 IMF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제조업 위주의 성장한계를 노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창출이 미흡했으며 서비스산업의 경쟁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 인천공항 부산항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육성하고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며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세계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 우수 인력 및 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2. 인천 경제자유구역

1) 인천이 가지는 지리적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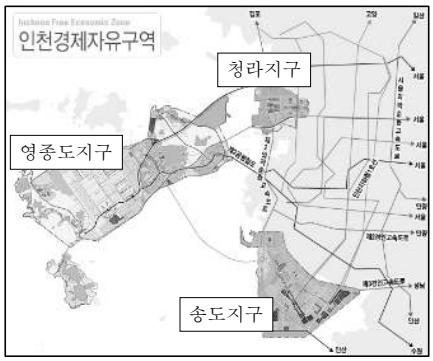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비롯한 새로 건설될 신항만, 광역교통망을 통한 물류거점지역이며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공급이 원활하고, 간척으로 충분한 규모의 부지확보 가능성 및 개발비용 수준이 낮다 그리고 배후지역에 인구 2200만의 수도권이 있어 대졸이상의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경영환경, 생활여건 등 서비스 수준이 높고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타 도시와 항공으로 3시간 미만의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다.

인천은 선박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또는 항공교통에서 도로교통으로 바뀌는 교통로의 적환지점에 위치한 도시이다. 이러한 적환지점에 공장이 입지할 경우 제품이나 원료 하역의 횟수가 줄어들어 총운송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도와 가까운 관문도시의 역할을 함으로 내·외국인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다.

2)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

먼저 전체적인 밑그림이 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신도시(1611만평)와 영종지구(4184만평), 청라지구(541만평) 등으로 구성되며 2020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크게 1단계(2003～2008년)입주와 2단계(2009～2020년)입주로 나눠 시행된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 영종도(4184만평)를 물류-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송도 신도시(1611만평)를 IT 등 첨단산업 R&D중심지로, 청라지구(541만평)를



국제금융·관광 레저단지로 각각 조성하는 마스터플랜을 실행해 나가게 된다.

경제자유구역내에 기업, 교육시설, 병원, 관광시설, 주거지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집적시켜 자족성을 높였다.

《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
출처: http://www.ifez.go.kr/

《 개발 계획 》

지구	1 단계 (2008)	2 단계 (2020)
송도 지구	○국제업무·IT산업 개발 (1~8공구)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 9~11공구 개발 - 국제업무단지 추가 조성
영종 지구	○국제항공·물류단지 개발 ○제2연육교 설치	○주거·관광단지 추가조성 ○제3연육교 설치
청라 지구	○국제금융·레저단지 개발 ○공항철도 건설	○제2외곽순환고속 도로 건설

출처: 재정경제부 / 2003 / 인천경제자유구역지정(안)

(1) 송도지구

중심이 되는 송도 신도시는 국제물류 비즈니스 지식정보산업 거점으로 조성되어 다국적기업의 동아시아 지역본부와 정보기술(IT) 등의 관련 국제기업이 유치된다. 즉, IT산업에 중점을 둔 신도시라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주거단지와 개방적인 교육, 의료 시설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국의 Gale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 추진하는 국제비즈니스센터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또 호텔과 오피스빌딩 등 61개도 외국 기업의 참여하에 건설할 예정이다. 기술개발(R&D)을 담당하게 될 테크노파크에는 32개 벤처센터가 입주하고 바이오단지에는 미 VaxGen사와 담배인삼공사가 합작하는 신약개발연구소가 들어선다.

(2) 영종도 지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하고 있는 영종지구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되고 항만배후단지, 국제유통단지, 산업용지 등이 완비된 국제물류지역으로 개발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물류기지기능을 담당한다.

영종지구 중 155만평은 공항부지내 물류, 비즈니스 단지로 조성된다. 지구내에는 관세자유지역이 위치해 하역, 운송, 보관 등을 담당하게 되며 국제 특송화물 빅4(UPS, FedEx, DHL, TNT)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가 들어설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전 세계 특송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입주가 끝나면 인천공항이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인천타워 조감도 》
출처: http://www.ifez.go.kr/

인근 용유도는 카지노, 호텔, 워터파크 등을 갖춘 해양종합리조트로 개발되고 무의도는 차 없는 무공해 섬이자 자연생태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3) 청라지구

인천 서구 경서동 일대의 청라지구는 국제 금융단지와 스포츠, 레저 단지가 세워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MGM, Walt Disney, Universal Pictures 등 대형 리조트 기업도 유치돼 골프 등 레저 및 스포츠 관련시설건설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중국과의 접근성을 고려, 화교 등 외국투자가들을 활용한 차이나타운 조성방안도 모색된다. 이들 지역에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단지와 학교, 의료시설도 입지한다.

3) 주요 교통로

경인, 제 2경인, 제 3경인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전철을 통하여 수도권을 40분 이내에 연결할 수 있고 인천지하철 1호선의 완공으로 인천 도심은 물론 수도권의 인력수급과 손쉽게 연계된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완공과 계획 중인 남북고속로가 건설되면 전국으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서울 강변을 기점으로 한 8차선 인천 공항고속도로가 2000년 11월 완공되었고 서울역을 기점으로 김포공항을 거쳐 신공항에 이르는 복선 공항전용철도와 제 3경인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수도서울과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동맥의 역할을 하는 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송도신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인천대교(제2연육교)가 건설되면 신도시는 새로 중축되는 영종도의 항만 시설과 함께 동북아 및 유럽과 육·해·공 복합수송이 이루어지는 교통과 물류기지의 중심지로 세계와 연결되는 교통망을 갖춘 동북아의 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4) 개발 효과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는 공사가 끝나면 여의도의 70배 면적에 인구 49만 명의 신도시가 생겨나고 312조원의 생산유발, 128조원의 부가가치 유발을 통해 약 440조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 48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해 실업률을 0.2 ~ 0.3% 떨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외국 관광객은 중국인 등 연 200만 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이 완료되는 오는 2020년까지 모두 2백 2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는 물류, 주거 각 44조원, 비즈니스 63조원, 산업 29조원 등이다.

그런데 정부는 14조 7천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14조 7000억원만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외자유치와 토지공사의 해외 IR[2]을 통한 투자유치, 토지매각, 인천시 등 사업주체의 민자 유치 등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176억달러는 외국인 직접투자, 100억달러는 프로젝트파이낸싱[3] 방식으로 조달해 총 276억 달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이른바 경제특구라는 것은 도시화 이론 중 '대도시 우선 개발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모든 지역에 전부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을 거점이 되는 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육성하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다는 이론이 바로 '대도시 우선 개발론'이다. 이러한 거점중점개발론에 근거하여 개발되는 인천경제자유지역은 지리적 여건상 대도시인 수도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이 큰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미 대도시 우선 개발론이 과적용된 수도 서울의 투자자본과 인력을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돌리게 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

2) IR [investor relations] :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하여 주식 및 사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보통은 기업설명회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3) 프로젝트 파이낸싱 [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3. 해외 선진사례 분석과 시사점

1) 두바이, 상해 푸동, 싱가포르의 성공요인

두바이는 세금이 없고 제한 없이 외환거래가 가능하며 스폰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쟁의가 없다. 다시 말해서 관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이 전혀 없고 다만 매년 영업허가를 갱신할 때 등록비를 교부할 뿐이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은 100%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자유구역의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국 외에 UAE 항만청, 관세청, 우체국, 수·전력청, 통신공사, 이민국 등 도시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관이 입주해 있어 일괄행정 처리가 가능하다.

푸동은 상해 시 동서를 가로 지나는 황포강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푸동은 경제특구 안에 4개의 개발구를 기반으로 생산, 교역 및 금융 등으로 특화되어 있다. 푸동의 세제지원의 혜택과 토지지원은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권을 분양하게 하였으며, 행정지원으로는 일괄처리(one-stop) 서비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싱가포르는 관련 부처의 협조 하에 투자관련 전 분야에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투자유치제도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며, 중장기계획과 목표를 고수하고,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유치 분야를 설정하여 관련 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 정부가 사전에 심층적인 조사와 설득력 있는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타국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

첫째,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바이와 같은 경우는 아예 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중국 푸동도 우리나라 보다 훨씬 낮다. 주요 유치업종으로 중국 푸동과 많은 부분 겹쳐져 지가나 인건비 등 가격경쟁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상대적 우위에 있는 기술력과 사회적 인프라를 이용한 원활한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화를 통한 집중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기업이 입주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영어사용이나 전문 인력 미흡 및 국제인력 유치 강화가 필요한데 이는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보다

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인재 중심의 정책이 중요시되고 있다. 외국의 유능한 인력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일자리를 차지하도록 하여 싱가포르와 국내 인력과의 경쟁을 강화시켜 국내 인력의 질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서는 규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자유경제구역청을 비롯해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투자유치에 대한 전 분야에서 일괄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유구역청을 특별자치구로 분리시키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4. 남겨진 과제

앞에서 살펴 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특히 송도신도시는 동북아에서 새로운 개념의 국제도시로 부각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부문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첫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10억달러 투자유치 실패와 같은 기반시설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의 문제와 같은 자금유치문제, 둘째, 외국인 투자유치에 있어 자국시장만으로도 엄청난 시장을 보유한 중국이나 기술이나 재반 서비스에서 앞서있는 일본 등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가 하는 문제, 셋째, 인천의 3개 지역이 차별적인 특화기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 넷째, 계획대로라면 1076만 평의 갯벌이 매립되는 것으로 세계 3대 갯벌이었던 송도 갯벌의 90% 가까이 없어지는 것으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문제 등 극복해야할 문제가 많다.

인천과 함께 2003년에 지정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최근에 추가로 지정된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황해(평택·당진)의 경제자유구역 또한 사업을 시작했거나 준비중에 있다. 부산·진해는 해운물류·기계·조선을 광양만은 해운물류와 소재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지만 모두 비슷한 계획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자칫 국가예산의 중복투자로 낭비 될 수 있다. 거점지역을 중점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여러 지자체에 완벽한 준비 없이 경쟁적으로 설치되어 계획미비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타 국가나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의 사례를 기억하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인천만의 특징을 부각시켜 성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생각해보기**

- 성공한 사례에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당연하고 실패한 사례에서도 배울 점은 많다. 그러면 북한의 나진선봉경제특구가 실패한 지리적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자.

《 참고문헌 》

-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경제자유구역사업 평가 / 국회예산정책처
- 이강효 / 2003 /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천대 국제경영대학원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2003 /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 / 재정경제부
- 터사랑 / 2005 / (지리교사와 함께하는) 인천땅 : 이만큼 알기 / 다인아트

《 참고사이트 》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http://www.ifez.go.kr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